

불자 세상보기



송재운
동국대 명예교수
실버타임즈 편집국장

금융감독원이 9월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동양증권으로부터 동양(건설, 건설, 플랜트,한일합성),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기업의 회사채나 기업어음(CP-Commercial Paper)을 사들인 투자자는 모두 4만 937명으로 이들의 투자액은 1조 2294억원에 달한다.

동양그룹은 지난 9월 30일 돌아오는 회사채 3천억원의 막지 못하고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 신청을 했고, 10월 1일에는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에 대해서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들 5개사는 총34개 그룹 계열사 중 총자산의 94%와 총부채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만일 이들 5개사가 법정관리되는 날에는 투자자들은 자금 회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자료는 30일 신청

한 3개회사에 한해 동양증권이 판 것인데, 여기에 시멘트와 네트웍스를 포함하면 투자자와 투자 금액도 훨씬 늘어 날 것이다.

동양그룹의 모태는 1957년 이양구씨가 설립한 동양시멘트다. 동양시멘트는 60-70년대 경제 발전 초기 기여도도 컸고 그 때는 10대 기업 반열에 들었다.

창업자 이양구씨는 딸 둘을 두었는데, 큰 딸 이혜경(동양그룹 부회장)씨의 남편이 동양그룹 현재 회장이고, 작은 딸 이화경(오리온 부회장)씨의 남편이 답철근 오리온 회장이다. 동양그룹과 오리온으로 기업이 분리된 것은 2001년. 동양그룹은 자산 7조 5천억, 부채 5조 8천억(6월말 현재)으로 부실의 원인은 2007년 이후 건설 경기의 침체에 있다고 한다.

이번 동양그룹의 사태를 놓고 볼 때, 위기의 근본은 세가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기업주의 탐욕이다. 이 탐욕이 방만한 경영을 불렀다. 동양그룹은 2007이후 건설 경기가 장기 침체로 들어 가고 있는데도 구조 조정은 커녕 오

히려 계열사를 늘려갔다. 2006년까지 6개였던 비 금융부문 계열사는 2007년 14개로, 2010년에는 18개로, 2011년에는 24개로 불어 났다(프레스인 10월 11일자). 또 그룹 부채비율이 583%에서 2011에서 2012사이 1232%까지 급증했다. 2013년 9월까지 이런 상태는 계속되면서 투자들을 유혹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부도 직전의 회사가 회사채, 기업어음을 계열 증권사를 통하여 수많은 개인들에게 떠넘겼다. 엄청난 도덕적 해이다.

다음은 신용평가사의 기업주 눈치 보기 평가다. 동양 부실 CP소크의 배후에 리오으로 기업이 분리된 것은 2001년. 동양그룹은 자산 7조 5천억, 부채 5조 8천억(6월말 현재)으로 부실의 원인은 2007년 이후 건설 경기의 침체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감독원 같은 정부 감독 기관의 감독 부실이 있다. 금융감독원이 사건이 터진 뒤에야 계열사 동양증권을 무기한 특별 감사하겠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다. 정말로 뒷북치는 감사가 아닌가. 수 많은 피

해자를 생각하면 금감원 원장은 차체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동양시멘트까지 법정관리 신청 하는 것을 보고 “회장님, 고객 돈 전부 상환해 주세요”란 유서를 써 놓고 동양증권 제 주 지점 여직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기업주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실망과 자기를 믿고 CP를 사준 수많은 고객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참을 수 없어 그녀는 남편과 두 자녀를 두고 세상을 버린 것이다. 이 순수한 한 여인의 한(恨)대로 기업주는 참회하고 고객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것이다.

불교의 기업가 정신은 대승의 이타자리(利他自利)이다. 곧 살리면서 사는 길이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 교세라 그룹 이나모리 가즈오(稻盛和夫, 80)회장은 “부처님의 말씀에 만족을 알라고 하였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욕망을 억제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이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양그룹의 사태를 보며 한국 자본주의가 가야 할 길은 살리며 사는 대승의 길이다.

동양 그룹, 불교의 경영관을 배워라

社說

총무원장 당선자가 풀어야 할 화두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가 끝났다. 먼저 마지막까지 선거를 완주한 다섯 후보 스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선거 결과는 박빙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자승 스님이 50표차로 총무원장 연임에 성공했다. 이는 선거인단이 체제 안정을 통한 변화를 더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승 스님은 제34대 총무원장에 당선됨에 따라 개혁 종단 이후 임기를 모두 채운 첫 연임 총무원장이라는 역사를 새로 쓰게 됐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험난했다. 불출마 선언과 주위의 반대 여론에도 특유의 정치력과 리더십으로 이를 정면 돌파했고, 자신의 정책을 종도들에게 어필하는데 성공해 당선에 이르렀다.

하지만 선거가 문제가 없던 것은 아니다. 유력 후보였던 자승 스님과 보선 스님 선거대책위원회의 물고 물리는 승적 의혹 폭로와 상호 비방은 세간의 정치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불교기자협회로 주최하기로 했던 후보자 간 토론회는 논의만 무성했을 뿐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이런 감정의 골을 수습해 선거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반대 여론 진영을 화합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자승 스님이 가진 숙제 중 하나다.

자승 스님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승가는 화합이 우선이다. 선거를 함께 한 후보를 비롯 모든 분들의 의견을 소중히 새기고, 화합을 위해 만반의 자리를 다양하게 갖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백양사 승려 도박 사태와 최근 무분별한 내부고발로 인한 종단 정정성 회복 역시 자승 스님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남아있다.

자승 스님이 당선 소감에서 밝혔듯이 종도를 역시 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앞으로 추진될 종단의 운영 사업에 지지와 비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자살공화국’ 오명 벗어나 불교 나서자

경제난과 사회적 박탈감이 커지면서 늘어나던 자살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2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1만4160명으로 2011년보다 1746명(-11.0%) 감소했다고 한다. 하루에 38.8명꼴로 자살했지만 전년(43.6명)보다는 5명가량 줄어든 셈이다. 자살이 줄어든 건 2006년 이후 처음이다. 최근 긴급전화상담, 자살예방센터 등 인프라가 강화된 것도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국이 ‘자살공화국’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은 여전히 여전하다. 이런 오명을 방지해선 안되는 상황에서 불교계가 자살예방에 적극 팔을 걷어 부쳐 눈길을 끌고 있다.

불교상담개발원이 중앙자살예방센터 및 불교계 복지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불교상담 영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10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자살 예방을 위해 불교

적 대안을 공동모색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체결을 통해 자살예방 인식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자살예방 교육 및 전문가 양성 지원과 교류 △협력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공유 △자살예방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정보의 공유 등 다양한 공동 관심사를 협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불교 자살예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불교상담개발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살예방 교육, 생명수호 캠페인, 자살위기 전문상담가 양성, 유가족 애도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세부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발원은 불교자살예방지원센터 5곳을 신규로 지정하고 지정서 전달식도 가졌다. 불교는 종교적 차원에서 생명을 중시하는 등 자살예방 활동에 부합되는 점이 많다. 이런 장점을 심본 활용해 대한민국이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 불교가 앞장서길 바란다.

사부대중 칼럼



성민선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국제포교사·수필가

제18회 부산영화제의 개막작으로 부탄 출신 켄체 노르부 감독의 <바라: 축복>이 선정되어 화제가 됐다. 현대 티베트 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 중의 한 사람으로 존경받고 있는 종사르 켄체 린포체가 바로 그 감독이다.

켄체 린포체는 조부가 티베트 불교의 큰 스승으로 일찍이 부탄으로 망명하여 부탄 공주와 결혼한 집안에서 1961년 태어났다. 일곱 살 때 티베트의 큰 스승인 잠양 켄체 왕포 린포체의 환생자로 판명되었다 한다. 열두 살까지 시킵 왕국의 왕공사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그 후 티베트 불교 모든 종파의 가르침을 섭렵했고 영국, 미국 등에서 동양학, 정치학, 영화 등을 두루 배웠다. 이탈리아 감독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의 <리틀 붓다>(1993)에 자문역으로 함께 하기도 했다.

그는 출가도, 결혼도 하지 않았다. 어디에 억매이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주로 복인도 비르 지방에 있는 종사르 사원의 여러 강원들에 머물며 스님들을 지도하고 찾아오는 외국인들도 만난다. 안거기간에는 부탄으로 가서 수행을 한다. 한편으로는 그가 직접 설립한 <사타르타 인텐트>(Siddharta's Intent)와 <백련 자선재단>(White Lotus Charitable Trust)을 통해 문화와 전통이 다른 곳에서도 부처님의 법을 펴고, 고통 속에 버려진 어린이들을 돌보기 위해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자비를 실천하고 있다.

켄체 린포체는 지난 8월 우리나라를 찾아 대중법회를 가진 바 있다. 나는 상도선원에서 그의 법문을 들었다. 법문에 앞서 그는 신도들이 절을 하려 하자, 하지 못하게 했다. 법문 서두에 먼저 자신이 출가한 승려가 아님을 밝히며 자신이 말하는 것이 실제수행이 아닌, 스승들에게서 배운 지적인 것이라며 하심(下心)하는 모습이였다.

그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재미, 돈, 그리고 규율이 필요하지만 그 모두가 환영(幻影)이라는 것을 아는 불교의 지혜 역시 꼭 필요하다고 했다. 앞의 세 가지는 상식이지만, 네 번

째는 지혜이다. 지혜가 없으면 환영에 좌우되는 삶, 사회가 상식적으로 정의하고 요구하는 ‘성공’, ‘쓸모있음’에 쫓겨 사는 삶은 해탈과는 방향이 다르다.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무한 경쟁을 하며 자신의 삶이 아닌 남의 삶을 사는 라 바쁜 현대인들의 긴급한 과제는 ‘쓸모있음’을 ‘쓸모없음’으로 극복하라는 요지이다.

영화는 그에게는 부업이다. 십 년에 한 편 꼴로 이제까지 세 편을 만들었다. <더 컵>(1991), <여행자들과 마술사들>(2003), 그리고 <바라: 축복>(2013)이다. 부산영화제에서 선보인 <바라: 축복>은 인도를 무대로 인도 배우와 인도 영화 특유의 관능적인 춤으로써 육체와 욕망 그리고 사랑이 인간을 신에 가깝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화제작이다. 힌두 무희인 여주인공이 조각가인 하층 계급의 청년과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위해 결국 자신을 희생하고 현실 속에서 구도의 길로 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불자들이 린포체의 영화를 만기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의 꿈이 부처님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드는 것이라고 알려졌다. 부처님의 일대기 영

화가 언제 만들어질지는 모르나, 그는 한 걸음씩 그 꿈에 다가가고 있는 중이다. 그가 만들 부처님 일대기 영화는 틀림없이 불자들 아닌든 세계인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서사 영화가 되리라 믿는다. 네팔, 인도의 대 자연 속에서 깨달음을 전한 맨발의 부처님 모습을 빨리 보고 싶다. 자신의 베스트셀러 책 <우리 모두는 부처다>에 묘사한 부처와 중생의 모습을 어떻게 영상으로 옮길 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영화에 온통 관심이 간다. 그의 나이 이제 52세, 시간은 충분하다. 10년 아니, 그 이상이 걸린다 하더라도.

문제는 돈이다. 린포체를 잘 아는 한국인 용수 스님에게서 들으니, 부처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려면 큰돈이 필요 한데 린포체는 “영화로써 돈을 벌기를 원하지 않기에 상업적 투자를 받고 싶지 않으며, 누군가가 그냥 쓰라고 돈을 주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모금은 폐가 되니 원치 않는다고 하였다 한다. 독자가 나타나면 제일 좋겠지만, 한국 불자들이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생각해볼 게 된다.

부처님 일대기 영화가 보고 싶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 (02)2004-8200 / 대표팩스 (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용 연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천문학자 이시우 서울대 명예교수의 직지에 대한 단상

直指

초판 일주일 만에 2쇄 발행

■ 이시우 지음 / 648쪽 / 29,500원 / 신국판 변형 양장

直指, 길을 가리키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뛰어넘는 가르침, 선불교의 정수 <직지>

선불교는 더 이상 풀지 못할 미지의 세계가 아니다.

천문학자 이시우 서울대 명예교수가 선불교의 정수가 담긴 <직지>를 인기문적으로 풀어낸 <직지, 길을 가리키다>, 접근 불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지던 선을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연기론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설명하고 있어 아주 쉽게 <직지>에 다가갈 수 있다. 저자의 별처럼 빛나는 통찰력과 해안으로 <직지>에 담긴 계승과 선문답에 대한 촌철살인의 단상(斷想)으로 이루어진 이 책이 가리키는 대로 걸다보면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열릴 것이다.

민중사 구입 문의 | 서울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워브파빌리온 1131호 민중사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s.com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마음의 비밀

표층과 심층이 연결되는 비밀의 코드, 아뢰야식!

유식(唯識)에서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아뢰야식이라고 한다. 마음의 표층에서 생기는 감정이나 사고는 모두 아뢰야식에 축적되어 무의식중에 표정, 몸의 상태로 나타나 외모에까지 영향을 준다. 표층과 심층이 연결되는 비밀코드를 알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책은 갖가지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을 위한 구체적인 체계적인 마음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 오효리아 코이츠(奥山 一) 지음, 김명우 옮김 232쪽 / 10,800원 / 4x6판

Tel. 02)732-2403~4 **민중사**

화두 참구의 길잡이! 깨달음의 길을 찾는 이들을 위한 선 수행의 필독서! 드디어 5년 만에 재간되다!

원문을 번역하고 현토(懸吐), 주와 해설을 붙인

벽암록 완역판

■ 원오국근 지·석지현 역주 해설 / 신국판 / 145,000원 (세로)

공안집의 최고봉, 선(禪)문화의 종결산 <벽암록>, 최초의 완역본! 석지현의 명쾌한 해설로 만나.

Tel. 02)732-2403~4 **민중사**